

Sermon 1 November 2015 All Saints Day

<룻기 1:1-18, 마가복음 12:28-34>

몇 년 전 친구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 한 권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도 여전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네 분의 조부모들이 모두 선교사였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의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의 기독교식 양육에 반발했으며 그리고 불가지론 자 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회정의 문제들에 관하여 사려 깊고 열정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개념이나 교회에 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상시와 같이 조깅을 하던 그녀는 그녀가 종종 무심히 지나갔었던 교회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흔치 않은 원형 모양 이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즉시 성소의 모든 곡선주위에 있는 성인들의 현대적인 스테인 글라스 윈도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성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은 거기 있었지만 또한 마틴 루터 킹, 오스카 로메로, 도로시 데이 같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제단은 둥근 건물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한번 더 그 곳을 다시 찾아왔고 그 제단 둘레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둥근 원안으로 휩쓸려 들어갔고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빵 한 조각이 그녀에게 왔을 때 무언가 그녀를 강렬하게 뒤흔드는 어떤 강한 임재를 경험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음식을 나눔의 중요성이 그녀에게 성인들의 성찬식에서 빵을 나누는 무언가 삶에 근본적인 것과 연계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녀에게 영적인 출생지와 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타인 글래스의 성인들이 내려다 보는 그 교회 안의 푸드뱅크로 바로 그 지점에서 배고픈 이웃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그녀의 사역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가난한 이웃들이 그 곳에서 단순히 음식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외된 자들은 더 이상 소외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젊은 여성의 비전에 의해서 영감을 얻었으며 그것은 성찬식의 빵을 나누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물리적인 굶주림, 소속감의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굶주림들이 성경의 여기저기 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굶주림들은 룯기 이야기 안에도 있습니다.

룯기는 정말 대단히 비범한 이야기 입니다. 룯기는 왜 거기에 (성경 사사기와 사무엘 상 중간 사이) 있을까요? 룯기는 연결된 글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쓰인 글입니다.

룯기는 또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시대를 연결시켜줍니다.

룯기는 룯의 증손자인 다윗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는 잘 누락될 수 있었습니다.

룻기의 첫 3 절까지 이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후 나오미와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이라는 이방지역에서 온 두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익숙한 고향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그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고통과 이별과 아픔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해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씀과 다른 아름다운 말씀들은 결혼식들에서 제가 한번 이상 듣고 읽은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들 자신의 고향을 떠나 불확실성과 함께 익숙지 않은 것을 동반하는 새로운 삶을 찾는 이들에게는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국이 폭력의 폐허가 되어 아무런 도움 없이 버려졌을 때 끔직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수 십만 명의 가족들의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관해서 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룻기는 남성의 세상 안에서 강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그리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성경전반을 통해서 성경의 표면에 그리고 바닥에 흘러가는 많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들의 상징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집안의 믿음의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

스테인드 글래스 창문 배경 안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성인들.

아마 룻은 난민들의 수호 성인 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글은 파괴된 가정으로부터 길을 떠난 시리안(Syrian)가족과 동행한 사진작가가 쓴 것으로 그 시리안 가족은 처음에 비록 그들의 친척들이 있는 스웨덴에 가기를 희망했었지만 터키에서 그리스로 슬로베니아에서 헝가리로 그리고 마침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덴마크에서 되돌아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처참한 상황들에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배를 채우기 위한 고난 속에서 그들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끈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아내는 임신 6 개월 이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함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또한 몇 마일 떨어진 아무도 모르는 외진 곳에 버려지는 택시승차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거의 견딜 수가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편안함에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 함으로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듯 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감정의 무력함, 죄의식, 또는 뭔가 깊은 곳에서 부터 나오는 울화 같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으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문구는 수세기에 걸쳐서 유대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된 고대어들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우리모두의 유일하신 주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아마 릿도 그녀가 채택한 믿음의 언어인 그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사랑하라는 설교에 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조잡한 낭만적인 사랑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하며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옳은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의 밑바닥에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최근에 분열은 다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지 않을 때 또는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남을 판단 하는 대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선언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의식인 번제와 기타 제물 봉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 율법학자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믿음 안에서 반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 갇혀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너무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잡한 세상이 우리의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거실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파라마타 모임 에서 Manas 목사님께서 나누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Manas 목사님과 그의 아내 Nita 는 리오(Rio)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쿠파카바나에 있는 해변에 사람들도 구경하시고 해변을 즐기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부부는 그 도시 위에 있는 거대한 예수님 상을 구경하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그들이 티켓을 예약하러 갔을 때 책상 뒤에 있는 남성이 그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 주면서 예수님 상이 안개에 덮여 있다고 하며 그런 상황에서 각각 \$63 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변찮은 돈을 벌기 위해 그의 어깨에 아이스크림 박스를 매고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노점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남자 노숙자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스크림 판매원은 일어나서는 그 노숙자에게 그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들은 기차를 타고 해안가에서 30 분 가량 떨어진 한 가난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또 아이스크림 판매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그 자리에서 또 일어 났습니다.

Manas 목사님과 그와 아내인 Nita 두 분은 예수님 상에서보다 이 아이스크림 판매자 에게 서 더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가서 예수님 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천하는 이웃의 사랑을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배고픈 사람들 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곧 알아봅니다. 우리 주위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초들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사람인 성인들의 셀 수 없는 이야기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 했을 때, 거룩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외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상반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 너무 노력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자신을 다르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분리 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는 성찬식의 포도주와 빵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식사자리에서 있었던 생명의 평범한 것들을 들고 그것을 그 이후 사람들을 변형시키신 사랑의 잔치로 변형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밖에 있는 그들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속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드리는 하나님 왕국의 즐거운 잔치입니다.